

제15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8월 중 한국에서 개최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에서는 차 세대를 짚어질 청소년들의 교류확대를 위해 2004년 1월부터 매년 2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한일고교생교류캠프」를 개최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일본 국토교통성, 주한일본대사관에서 후원하는 금번 제15회 캠프는 2010년 8월 3일(화)부터 8월 7일(토)까지 4박 5일간 라마다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다.

본 캠프에서는 한일 양국에서 참가한 100명의 고교생들이 한일 혼성팀으로 나누어 양국의 관광·문화를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기획하게 되며, 이러한 공동 작업을

통해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8월 6일(금)에는 학생들이 시장조사 및 공동 작업을 통해 준비한 기획을 선보이는 ‘사업발표회’가 개최된다. 오전 9시 반부터 오후까지 진행되는 사업발표회는 회원사, 소속 고등학교, 언론사 등 관계기관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참관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전의 발표회가 끝나면 오찬도 제공된다.

사업발표회에 참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7월 23일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처 : 02-3014-9888/홍소영 대리) ☎



제11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토야마(富山)에서 개최

우리나라 동해안 4개 자치단체(대구·울산·강원·경북)와 일본 호쿠리쿠(北陸3縣: 토야마(富山)·이시카와(石川)·후쿠이(福井)현) 지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11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가 오는 8월 3일(화)~8월 6일(금)까지 일본 토야마시에서 개최된다. 무역·투자·기술협력 확대 등 지역간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11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에서는 기존의 민관합동회의 방식 대신 한일 교류 세미나, 패널 디스커션, 전문 분과회 등 새로운 회의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즈니스에 관한 ‘패널

디스커션’을 신설하여 한일 양국의 시장 개척 성공 사례 및 애로사항,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새로운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한·일 양국 자치단체의 시즈와 니즈를 반영한 ‘의약업 분과회’를 구성함으로써 양국의 의약업 현황을 파악하고, 토야마의 제약업과 한국의 바이오산업 분야, 의료기기 분야,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가 제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토야마 모노즈쿠리 전시회에는 대성하이텍 등 5개사가 출품하여 산업부품·재료, 관련기술 등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한다. 



한·중·일 3국간 교류의 장 일본 키타큐슈시에서 열려

~제1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 제17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우리나라 수도권·충청권(2광역시·3도 : 인천, 대전, 경기, 충남, 충북)지역과 중국 환황해 연안(3시·4성 : 北京·天津·上海市, 遼寧·河北·山東·江蘇省)지역 및 일본 큐슈(7현·2정령시 : 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쿠마모토·오이타·미야자키·가고시마현, 후쿠오카·키타큐슈시)지역과의 경제발전과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3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대학, 기업 등 관계자가 모여 3국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1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 오는 10월 12일(화)~10월

15일(금)까지 일본 키타큐슈시에서 개최된다.

* 한국측 지식경제부 통상협력정책관, 일본측 경제산업성 큐슈(九州)경제산업국장, 중국측은 상무부 아주사 부사장과 과학기술부 국제합작사 부사장을 단장으로 각국의 정부관계자, 자치단체, 경제단체, 대학, 기업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환황해 환경경제권’ 구축을 테마로 한 이번 회의는 환황해지역의 무역·투자 촉진, 과학 기술교류 촉진, 교육·인적교류의

촉진 등을 주제로 환황해경제기술회의의 본 회의와 정부대표자회의(3국 국장회의),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 한중일 과학기술 포럼, 환황해 산학관 연계 대학총장 포럼, 항만물류경제협력 포럼 등을 개최한다. 아울러 환경관련 제품 및 기술을 전시하는 ‘에코테크노 2010’ 전시회와 한중일 3국의 10개 도시의 시장 및 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하는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의 제조업부회·환경부회도 병행 개최된다.

같은 기간에는 일본 큐슈(九州)지역과의 무역·투자·기술협력 확대 등 지역간 교류 촉진을 위하여 양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

여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17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도 개최된다.

금번 회의에서는 ①중소기업간 경제교류 확대 지원을 위한 분야별 협력의 촉진 ②비즈니스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적극적 전개 ③지역간 경제교류의 확대 등 한일 간 무역, 투자, 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3가지 의제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 자유논의 시간을 갖는다.

제1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 제17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의 참가자 모집은 7월 말~8월 중순에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처: 02-3014-9888/홍소영 대리) ☎



제4회 일한경제심포지엄 개최안내

일한경제협회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한일간의 경제연계 및 환경협력의 가일층의 진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5일(수) 일본 경단련회관에서 ‘제4회 일한경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10년 11월 개최 예정인 G20정상회의 & APEC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심포지엄으로서 두 가지의 서브테마로 ‘한일 연계의 진화로서의 FTA/EPA’, ‘한일 환경 대처와 한국기업의 사업전략’에 대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1. 일정 : 2010년 9월 15일(수) 13:30~17:30
2. 장소 : 일본 경단련회관 2층 경단련 국제회의장
3. 실시방법 : 동시통역
4. 주최 : 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5. 후원 : 일본경단련, 경제홍보센터, 외무성, 주한일본국대사관
6. 프로그램(안)

공동 테마	o 한일 간의 경제연계 및 환경협력의 가일층의 진화를 위하여
개회/인사	o 개회사 : 일한경제협회 회장 o 인사/축사 : 일본국 외무성/경산성, 한국 : 주일한국대사 o 사회·요령설명 : 와세다대학 후카가와 교수
서브테마1	o 한일 연계의 진화로서의 FTA/EPA, 특히 한일 FTA/EPA의 조기 재개 방안과 한중일을 기축으로하는 동아시아 연계 신 협상전략을 모색 - 일본 : 중일 간의 사례를 통해 보는 사업 연계의 미래방향 도쿄대학 이토 모토시게 교수 - 한국 : 한국의 FTA전략과 한중 간의 사업 연계, FTA 대처방향 후보자(안)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섭외·조정중
휴식	o 회의장 앞에서 전원이 간담
패널토의 (&질의응답)	o 사회·세션 발표자에 의한 패널토의 - 발표자 상호간 질의, 한일 FTA, 플로어 질의, 사회자 마무리
서브테마2	o 한일 환경 대처와 한국기업의 사업전략 - 일본 : 환경분야에서의 한일협력에 초점 환경 에너지분야의 新日本石油·GS칼텍스/SK와의 한일협력..... 신닛세키(新日石) - 한국 : 한국기업 약진의 비밀과 한국의 환경대처
폐회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 프로그램 개요

4월 15일(목) ※ 4월14일(수) 13:00~19:30까지 단장단 예방 활동

개회사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英胤) 일한경제협회 회장
내빈축사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 황순택 주일한국대사관 경제공사 대독	이시이 마사히로(石井正弘) 오카야마현 지사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일본대사
기조연설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전 국무총리 「지구 온난화 방지를 향한 일본의 과제와 대처」	고미야마 히로시(小宮山 宏) 미즈비시종합 연구소 이사장 /동경대학총장고문(전 총장) 「한일 협력의 신시대를 추구하며」
보고·제안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보고·제안(부품소재·무역투자/인재교류) ■ 「한일 부품소재산업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부품소재,대일무역투자 활성화 제안」 이덕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일본수출기업종합기술지원센터장 □ 「인재교류 활성화에 대한 제안안」 麻生 泰(아소 유타카) 아소라파주시멘트(주) 사장 /「인재교류,대한투자활성화 상세설명」 高田伸顕(다카다 노부아키) 노무라종합연구소 부장	

4월 16일(금)

제1세션	『동아시아 경제연대(공동체)와 한일관계』 사회 :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술원 교수	
	『동아시아 경제연대와 한일관계』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동아시아 경제연대와 한일경제협력』 카와이 마사히로(河合 正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소장
	『동아시아 시장에서의 한일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 방안과 역할』 이수철 삼성물산(주) 자문역	『동아시아 경제연계(공동체)와 한일관계』 우에노 켄지(上野 健次) 도레이(주)이사국제부문장
제2세션	『금후의 환경경영과 그린 비즈니스의 전개와 전망』 사회 :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 교수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의 시사점 : 녹색성장』 유연철 외교통상부 녹색환경협력관	『금후의 환경경영과 그린 비즈니스의 전개·전망』 아다치 에이이치로(足達英一郎) (주)일본종합 연구소創發戰略센터/ESG리서치센터장
	『녹색성장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최태일 한국전력공사 스마트그리드추진실 처장	『태양광발전 비즈니스의 현상과 전망』 익키 오사무(一木 修)(주)자원종합시스템 대표이사사장
폐회식	공동성명 채택, 폐회인사 / 공동기자회견	

단장단 예방활동

1. 예방 실적

가. 예방시간 및 예방 대상 : 4월 14일(수)

예방시간	예방처	성명	비고
13:30~13:50	경제산업대신	나오시마 마사유키 (直嶋 正行)	경산성
15:40~16:10	외무대신	오카다 가츠야 (岡田 克也)	외무성
17:00~17:30	재무 부대신	노다 요시히코 (野田 佳彦)	재무성
18:30~19:00	내각특명담당대신 (국가전략담당)	센고쿠 요시토 (仙谷 由人)	내각부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으로, 센고쿠 요시토 내각특명담당대신 예방

나. 예방자 : 조석래 단장 등 한국측 단장단 7명

NO	구 분	성 명	단체 · 회사명 / 직위
1	단 장	趙 錫 來 (CHO Suck Rai)	(사)한일경제협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주)효성 회장
2	부단장	具 本 俊 (KOO Bon Joon)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주)LG상사 부회장
3	부단장	羅 應 燦 (RA Eung Chan)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4	부단장	徐 敏 錫 SUH Min Sok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동일방직(주) 회장
5	부단장	李 潤 雨 (LEE Yoon Woo)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부회장
6	부단장	崔 用 權 (CHOI Yong Kwon)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삼환기업(주) 회장
7	단 원	智 光 薰 (CHI Kwang Hoon)	(사)한일경제협회 전무이사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 주일한국대사관 관계자 배석

- 내각특명담당대신 : 황순택 경제공사, 박원주 상무관, 배성준 상무관보
- 경산대신 : 박원주 상무관, 배성준 상무관보
- 외무대신 : 황순택 경제공사, 박원주 상무관, 배성준 상무관보
- 재무 부대신 : 황순택 경제공사, 박원주 상무관, 배성준 상무관보

※ 일본측 안내

- 飯島 秀胤(IIJIMA Hidetane) (사)일한경제협회 회장/도레이(주) 특별고문
- 古川 洋三(FURUKAWA Hiromi) (사)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2. 의견교환 주요내용

(1)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이 양국에 있어서 최대의 경제 관심사

- 그 토대로서 양국 주도에 의한 양국 간 FTA/EPA의 체결을 선행시키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

(2) 한일 FTA/EPA의 교섭 추진

- 방문을 받은 일본의 4개 관청 모두 일치하여 FTA/EPA 교섭을 전진시키는 것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자세를 어필하였음
 - 일본 정부 측은 경제공동체형성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한일 간의 FTA/EPA(경제동반자협정)가 조기에 실현되기를 한 목소리를 내어 요망
- 우리 측 대표단은 '개방된 높은 수준의 FTA체결에 대처하려는 자세를 보임과 동시에 한국 국내에서는 교섭의 진전에 난색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한일 간의 무역불균형 해소와 농수산물의 관세 개방 등의 과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

(3) G20 및 APEC 정상회의, 비즈니스 서밋 개최에 대해 협력

- 오는 11월 한일이 각각 주최가 되어 개최하는 G20 및 APEC 정상회의, 비즈니스 서밋 개최에 대해 대화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협력

(4) 2012년 여수 국제 박람회 개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한국의 협력 지원 요청에 대해 일본정부는 전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

(5) 한일강제병합 100년, 일본의 노력을 요청

-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발표와 같은 하토야마 총리의 담화 발표를 기대
-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 문화재의 반환

(6)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에 한국인이 선정되도록 일본의 지원을 요청

한국측 단장 개회사

조석래

한국측 대표단
단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좋은 계절에 유서깊고 아름다운 도시 이곳 오카야마에서 한일·일한경제인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회의를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한국 대표단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 英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과, 이시이 마사히로(石井 正弘) 오카야마현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명예회장님과 시게이에 토시노리 주한일본대사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고미야마 히로시(小宮山 宏) 전 도쿄대학 총장님과 이흥구 전 국무총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한해를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주요 경제국들이 신속하게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펼친 데 힘입어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선진 경제권도 미세하나마 흑자성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의 실업률이 높

고, 유럽에서는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도 있으며, 선진경제권 모두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여서 경제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세계경제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歐美, 특히 미국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바탕으로 과잉소비를 함에 따라 세계경제가 장기 호황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들 서구 국가들의 소비가 세계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령 지금의 불황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歐美 경제권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하자면 상당 기간 저성요, 저성장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歐美 경제권에 버금갈만한 경제력으로 성장한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성장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이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세계 금융 분야에서의 영향력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歐美주도로 세계경제와 금융질서가 이루어지던 시대는 지나간 것 같고, 이제는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 발전과 금융질서 유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아시아는 그 동안의 구라파, 미국 등 역외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발전 모델에서 탈피하여, 역내 교역을 활성화하고 자체 내수시장을 키움으로써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기존의 선진국 시장이 위축되어 가는 상황에서 아시아가 자생적으

로 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경제성장 중심축으로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아시아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역내무역을 늘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방으로 상호간의 장벽을 허물고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아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바탕으로 역내 금융협력 체제를 만들어 세계금융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역내 시장개방과 금융협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한 방법이 경제공동체의 구축입니다. 하토야마 총리께서도 정권출범 초기부터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밝히고, 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중시하는 정책을 의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도 하토야마 총리는 “동아시아 공동체는 유로존의 조화와 협력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역내 국가들은 경제발전과 지구온난화 대처 등의 협력을 위해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넓은 지역과 다양한 종교, 문화, 정치체제, 그리고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 등 많은 이질성을 안고 있어 단시일 내에 전 지역을 엮는 지역경제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같이하고 있고 경제발전 단계 등 모든 면에서 가장 가까운 한일 양국이 우선 협력하여 불가분의 partner로서 중심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키워 가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U의 형성과정에서도 처음에 독일과

프랑스가 철통같은 연대를 맺어 유럽의 통합을 이끌어냈듯이 아시아의 통합을 위해서는 한일 두 나라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시아 국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도 우리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해 왔지만,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가 서로간의 상호협력과 신뢰구축에 걸림돌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양국의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는 돈독해져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지난날의 장벽을 넘어서 미래를 지향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공동개최하면서 두 나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자존심으로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의 감동을 되살려 우리 두 나라가 아시아의 공동 번영과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이 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 대의를 향해 함께 전진하는 굳건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우리 아시아 지역이 세계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상징적이고도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의 영향력이 유감없이 발휘될 것이고 이에 따라 아시아의 책임 또한 크게 주목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한일 두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세기 후반의 눈부신 세계 경제성장은 21세기에 들어서 또 하나의 심각한 도전을 가져 왔습니다. 일부 선진국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산업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자원 고갈의 위기와 환경변화의 위협을 가져옴에 따라 ‘그린 산업’을 통해 미래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산업발전 **paradigm**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앞선 환경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선구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국에게 ‘그린 비즈니스’는 매우 적절한 협력의 대상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동아시아 경제연대와 한일관계”, 그리고 “환경경영과 그린 비즈니스의 전개와 전망”을 주제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들이 많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본측 단장 개회사

飯島 英胤

(IIJIMA Hidetane)

일본측 대표단

단장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이지마입니다. 금번 경제인회의는 제42회째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의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금번 경제인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한일경제협회 회장님이신 조석래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측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많은 협력을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경제인회의는 오카야마시에서 개최됩니다만, 오카야마현과 시, 상의, 그리고 관광컨벤션센터의 단체장님들과 여러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협력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무다망하신 가운데 방금 소개해 드렸던 내빈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일본과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경제를 보면, 재작년의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그 영향으로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각국의 협조로 금융시스템이 안정되고 각국의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봄으로서 지금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기대책을 수행하고 그리고 기업으로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글로벌 불황, 경제위기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국의 경쟁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제금융시스템이 더욱 안정되고 세계경제가 힘차게 경기회복이 될 경우 국제협력체제 혹은 국제공조체제가 더욱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11월에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또 일본에서도 그 후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모두 참으로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과 하토야마 총리대신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과 한국의 경제교류에도 작년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역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712억불이라는 전년대비 180억불 감소 즉, 20%감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대한투자자를 보면, 19억불로서 이것은 전년대비 36%늘어났습니다. 즉 한국전체의 해외로부터의 투자유치가 줄어 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대한투자자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한투자자가 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본과 한국의 무역, 경제, 인적교류는 그 때 그 때 여러 가지 영향은 받지만, 그래도 일본과 한국은 서로 중요한 파트너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지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파트너가 두 나라인 것

입니다. 이런 두 나라가 앞으로 더욱 더 가깝고도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점을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직시하고 그 반성 하에 앞으로 더욱 더 어려워질 세계경제 속에서 일본과 한국이 서로 경쟁하며 서로 절차탁마(切磋琢磨)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협력공조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말입니다. 서로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또한 이를 이해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협력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대담하게 협력하면서 같은 길, 같은 방향을 추구해 간다는 말입니다. 작은 잘못이라든지 혹은 과거에 집착한 나머지 일본과 한국의 두 나라가 미래의 커다란 이익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의 끈, 신뢰유대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된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상호신뢰관계가 없다면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고 또 어떤 결과도 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각 분야에서 각 계층에서 이 신뢰관계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한 일본과 한국의 과제를 해결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간의 현안 중에서도 가장 큰 현안은 바로 두 나라간의 FTA/ EPA 체결입니다. 가능한 한 조기에 협상이 재개되고 그래서 하루빨리 높은 수준의 FTA/EPA가 체결되도록 양국 정부에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일본과 한국의 방향성, 관계성 등등에 입각해서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

술협력재단이 한국측의 조직과 공동으로 협력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2~3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역과 투자의 확대균형을 위한 활동입니다. 작년 10월에 대한투자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일본의 중소기업 약 30개사로 편성된 투자단을 만들어서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세 군데 공업전용단지 방문했습니다. 아주 좋은 평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대한투자확대뿐 아니라 일본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하나의 비즈니스 기회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방문대상지를 더 확대해서 다시 시찰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양국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상거래 혹은 사업공조, 사업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이것을 일상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국 재단에 2년 전에 비즈니스정보센타를 설립했는데, 그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약 10건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활동을 더 확대해서 양국간의 투자확대, 무역확대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협력을 바랍니다. 두 번째 커다란 포인트는 양국의 미래를 짚어질 청소년교류입니다. 작년에도 양국의 고교생교류캠프를 일본과 한국에서 각 1회씩 두 번 개최하였습니다. 최근의 이 캠프의 특징으로는 고교생 수준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양국학생 모두 어학력, 특히 영어능력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특히 한국의 고교생들은 영어능력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교육효과도 높고 그래서 참가학생뿐

아니라 관계자들도 높은 평가를 얻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오사카에서 개최했는데, 이 때는 일본의 NHK가 이틀간에 걸쳐 캠프의 모습을 방송을 했고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캠프는 자유롭게 견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캠프현장에 오셔서 꼭 한번 견학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연수활동입니다. 과거에는 한국대학원생들이 일본에 와서 연수받는 것이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일본대학원생들이 한국에 가는 연수도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더 확대해서 쌍방향으로 대학원생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양국이 제창하는 기술입국, 기술창조입국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활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협력 하에 양국 협회 및 재단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경제인회의라는 것도 정보교환에 그치지 않고 즉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장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토의하였던 그 내용들도 취합해서 공동성명이라는 형식으로 정리하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각국 정부에 건의를 하는 식으로 정보를 발신해 가는 기능을 앞으로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참여로 본 경제인회의가 큰 성공을 얻을 수 있기를, 또 여러분 한분 한분에게 뜻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한국측 내빈축사

황순택

주일본국대한민국
대사관 경제공사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인사 대독)



존경하는 이이지마
히데타네 일한경제협회장님, 조석래 한일경
제협회장님, 그리고 양국 경제인 여러분!
올해로 제42회째를 맞는 한일·일한 경제인
회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리고 국내 일정상 오늘 이 행사에 직접 참
석하지 못하고 축하메시지로 대신하게 됨
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경제인회
의는 지난 1969년 발족된 이래 한 해도 거
르지 않고 개최되어 대표적인 민간경협체
로 자리 잡았으며, 양국간 경제교류 활성화
의 구심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동아시아 경제연대와
한일관계’ 및 ‘환경경영 및 그린 비즈니스’
를 주제로 채택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제공조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양국간 협력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지난 반세기를 돌이켜 보면 한일 경제협력
은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
니다. 한·일 양국간 교역규모는 1965년 2
억불에서 ‘07년 827억불이라는 최고치(’09
년 712억달러)에 이르기까지 400배가 넘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對韓 투
자액은 작년까지 총 239억불로 2위를 기록
하고 있으며, 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일 경제
인회의를 통한 양국 경제인간의 꾸준한 대
화와 노력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
을 했으며, 나아가 이러한 민간 경제교류가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양국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애써주
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이 이러한
양적 성장에 만족한다면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한일관계, 즉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질적 고도화를 이룰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
다. 우리에게겐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
기술교류, 투자 확대 등 양국기업간 협력
확대가 절실합니다. 또한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 FTA협상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양국이 FTA를 통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다
는 신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양국 모두에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는 기업간 협력사업을 추진
한다면, 한·일 FTA협상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는 양국간 교류협력을 넘
어, 제 3국 공동 진출 및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시대에 환경 및 녹색성장 분야
에서 양국 기업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비즈
니스 기회 창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경제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국경제인 여러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양국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셔틀외교가 복원되었고, 외교·안보, 정치,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하토야마 정권 출범 이후, 하토야마 총리께서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제안 등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바람이 불 때 배를 띄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분위기는 민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상호 윈-윈 하는 미래지향적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다시 한 번 제42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양측 기초연설 요약

한국측 : 이흥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전 국무총리

『韓・日協力の 新時代를 追求하며』



- 일본과 관련된 경험을 중심으로 그간 한일협력 관계와 향후의 협력 방향에 대하여 발표
-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는 한일 新時代의 序幕, 새로운 시대를 주도
- 문화 등 한일 민간교류 활성화 필요(한일문화교류기금 활동, 동북아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동북아 현인회/한중일 30인회 개최)
-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양국의 공동 보조 강화 필요
- 한일 협력의 현안과 과제(무역적자 지속과 부품소재산업의 對日의존, 그린비즈니스 협력, 대한투자 확대, 보호무역 저지·G20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한일 간의 긴밀한 협력 등)

일본측 : 小宮山 宏(KOMIYAMA Hiroshi)

미츠비시종합연구소 이사장

『地球温暖化 防止를 위한 日本의 課題와 對處』



- 課題先進國 日本(2007년 발행, 과제해결 비전과 신국가상 제시)이라는 저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처방안을 제시
(일본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빨리 에너지, 환경, 고령화, 쓰레기, 핵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어, 일본이 앞장서서 이를 잘 해결하면 세계에도 큰 도움이 되며, 대학이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음)
- 일본의 보급형 수요의 포화 : 자동차, 주택, 내구소비재(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 21세기 패러다임 변화(무한의 지구→유한의 지구<기후변화, 자원고갈, 오염, 물>, 고령화 사회, 지식의 사회)
- 비전2050 제시(에너지 효율 3배, 재생가능한 에너지 2배, 물질순환시스템 구축)
- 일본의 에너지 소비 구조 및 에너지 절감 방안 제시
- 2050년 일본의 자급률 비전 제시(에너지 70%, 자원 70%, 식료 100%)

※ 기초연설문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 정보데스크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02-3014-9877/심규진 차장)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0년 4월 15일, 16일 이틀동안 일본국 오카야마시 (岡山市)에서 한국 측으로 부터 조석래(趙錫來) 단장 등 110명, 일본 측에서는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 英胤) 단장 등 146명이 참가하여 개최되었다.

재작년의 세계 동시 불황에 의해 경기는 크게 침체하였지만, 각국의 협조에 의한 금융안정화책과 각국의 경기대책에 의해, 한시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경기는 회복기조에 있다. 그 가운데, 한국이 선진국 중에서도 보다 신속하게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것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 모두 세계불황에서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에는 아직도 강력함이 모자라 더 한층의 대책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1. 최근 1년간, 한일 양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인 과제를 신산업무역회의에서 채택하여 구체적인 과제해결을 향한 활발한 토의를 거듭해 왔다. 그 토의결과를 경제인회의에 자문하고, 시책의 확실한 실현을 향해 노력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향후 양국의 정부에 대한 제언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그 제언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미루어져 온 양국 제언문을 포함하여 그 처리를 양국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

(1) 금년의 일본측 테마인 「한일 간의 인재교류 활성화」에서는 한일의 고급 인재를 주요 대상으로 자격 공유화와 관련

된 과제에 대해 토의하고, 향후 양국 간의 인재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제도와 추진방안을 정비하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또한, 한국측의 테마인 「부품소재산업의 한일협력 강화」에서는 한일협력 체제에 장애가 되는 애로 사항의 해소를 목표로 한일 간 무역불균형의 개선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였다.

(2) 작년 경제인회의에서 토의되었던 「한일 간 무역·투자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작년 양국 간에 합의하여 인식을 같이 했던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과 협력 체제」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그 후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추가 수정한 제언서가 양해를 받았다.

2. 이번 경제인회의에서는, 아시아가 세계 경제시장에서 크게 성장하여 존재감을 드높이고 있음을 인식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공유되었다. 그 가운데 아시아의 높은 경제성장이 기존의 세계경제에서의 수요·공급의 구조와 물류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음을 인식하였는데, 한일 양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향후 양국이 각각의 특색을 살려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공고히 하여 대등한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그 중에서도 경제공동체형성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한일 간의 FTA/EPA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그 조기실현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3. 21세기를 향한 저탄소화 사회의 실현은 세계 공통의 과제이며, 특히 선진국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이 일치하였다. 양국 경제인은 이 명제를 국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면으로부터 과제에 대처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태양광 발전으로 대표되는 각종 비화석(非化石) 신 에너지의 개발과, 스마트 그리드를 응용해 소비 에너지의 최대 효율을 지

향하는 시스템이나 기술의 개발은, 양국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라는 것을 인식하여 폭넓은 논의를 실시하였다. 향후의 과제로서 한일 양국은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향해 폭넓게 향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관계자 간에 공유하였다.

4. 다음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1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 4월 16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조 석 래
일본측 대표단 단장 飯島 英胤

한일·일한경제인회의 제언요망서 요약

이번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제언·협의체인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중심으로 검토해 온 한일 간의 중요 공통 과제 3가지를 상정하여 토의하였으며, 한일/일한 兩경제협회는 양국 정부에 대해 제언요망 사항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활동테마 :

1. 한일 간의 무역·투자 활성화(한일 공통테마)
2. 한일 인재교류의 활성화(일본측 테마)
3. 한일 부품소재산업의 협력 강화(한국측 테마)

1. 한일간의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대한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일본측

1. 일부 부당한 노동 운동에 대한 법의 엄격한 적용
2. 법정 퇴직금 제도의 개혁(퇴직금 일률지급에서 사유별 지급화)
3. 노조 전임자 급여에 대한 회사 부담의 폐지
4. 공업단지 등에서의 경제 특구의 개념과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 특히 일본 부품소재 전용단지에 적용. 완화대상으로서 법정 퇴직금 일률지불의무, 중소기업 정의변경
5. 기업기밀(기술 노하우 보호 등)에 관한 관련법규의 엄정한 운용
6. 지적재산법규의 정비·계획·조직의 확립을 총체적으로 추진하는 체제를 구축
7. 특허출원제도에 있어서 영어 출원의 인정
8. 중소기업 대상 대출비율규제의 탄력적 운용(외국기업)
9. 「중소기업」 정의변경에 따른 세제에 대한 영향 개선(외국기업 우대책의 계속)

(2) 대일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한국측

1. 수출입 안전관리 종합인증우수업체(AEO)공인제도의 상호인정협정 조기체결
2. 국제적 승인을 취득한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재검사 기준을 완화
3. 하역회사 선정과 관련한 일본항운협회와의 사전협의 의무제도의 개선을 희망
4. 롤 상태, 재단한 카매트원단에 대해 무관세 적용 희망(자동차용으로 분류)
5. 한국 특수차량의 일본국내 임시운행 허용을 희망
6. 공공공사 및 대형공사 발주 시, 일본 철강회사 제품 지정 관행을 개선

7. 전력회사의 발전설비 입찰 시, 외국기업 차별적 조건(제한경쟁입찰)을 개선
8. 건설공사 현장의 선임기술자 배치에 대한 외국업체의 자격요건 완화를 희망
9. 요리사의 일본 취업비자 발급 조건 완화를 희망

2. 한일 인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일본측

(1) 한국 청년 고급 인재의 일본기업 고용 추진

- ① 일본 측 수용 시책 : 취업 기회의 확대
 - 기업 측의 인식개혁
 - 정착을 위한 체제 구축, 연금 조건 개선
- ② 한일 공통의 시책 : 고급인재의 교류활성화를 촉진하는 시책의 정비
 - 유학생 수용/취업의 지원제도 확충 : 새로운 추진방안 구축
 - 상호 니즈에 대응 가능한 체제 정비 : 취업 지원 사이트 개설/공동설명회 개최
 - 일본어 및 일본 비즈니스 관행의 보급 : 비즈니스 일본어의 한국으로의 보급
 - 인턴십제도의 확충 강화 : 수용 조건(기간) 조정

(2) 자격상호인증/자격인재의 고급화

- ① 중상급 IT기술 : 연수의 내실화 및 강화를 통한 자격상호인증의 추진
- ② 관광여행 : 연수의 내실화 및 강화를 통한 자격상호인증의 추진
- ③ 개호(介護) : 아시아 개호인재 양성기관을 설치하고, 개호인재의 교류연수, 연수의 표준화, 일본자격의 한국 인증 및 중기적으로 한일 신자격 상호 인증을 추진
- ④ 환경 : 한일 환경인재 교류회(가칭) 설치, 新연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컨설팅 인재육성 및 연수/강습의 활용을 통한 자격상호인증의 추진

3. 한일 부품소재산업 협력강화를 위한 제언 : 한국측

- (1) 한일 간 M&A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 M&A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상설 상담창구 설치
- (2) 한일 부품소재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 추진
 - 공동연구, 기술교류회, 전시회 등 국제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3) 부품소재 통계분류 체계화를 위한 공동 연구 실시
 - 한일 간 공통분류체계 마련을 통한 동일한 산업구조 분석
- (4) 부품공용화 및 상호인증 확대를 촉진
 - KS와 JIS의 정합성이 용이한 부품부터 부품공용화의 점진적 확대 및 상호인증제도인 '아시아통합인증시스템'의 구축을 촉진하여 활동을 강화

☼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회의장(호텔 그란비아 오카야마) 전경과 환영 포스터들



한국측 단장단의 일본 주요기관 예방 모습

방명록에 서명하는 조석래 단장



개회식 전경

기조연설 모습



개회인사하는 양국 단장

회의 진행하는 양국 단장

축사자 이시이 지사, 황순택 경제공사, 시게이에 대사



기조연설자 고미야마, 이흥구 이사장

커피브레이크

보고자 아소 체어맨, 타카다 부장, 오영호 체어맨, 이덕근 센터장

☼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오카야마 지역대표 인사

건배제외하는 양국 단장

리셉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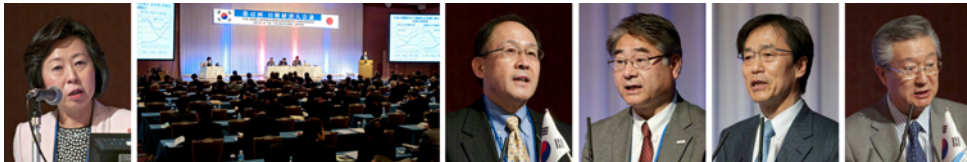
지역인사와 기념촬영



축하 공연

마무리 인사

사회자



후카가와 좌장

제 1세션 전경

카와이 소장

우에노 부문장

이경태 원장

이수철 자문역



오코노기 좌장

제 2세션 전경

아다치 센터장

익키 사 장

유연철 협력관

최태일 처장



단장단 공동성명 심의

단원 오찬회

공동성명(안) 낭독하는 양국 전무

포토타임

인터뷰하는 조석래 단장



부인프로그램(고라쿠엔 견학, 다도 체험)

읍선행사(이누지마아트프로젝트)

Only-One 일본기업 50 <제6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기업연구센터에서 기획하고 오태현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가 지은 『Only-One 일본기업 50』을 연재합니다. 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한계에 도전하는 기술지향형 중소기업’, ‘성장이 기대되는 신시장개척형 중소기업’, ‘생산체제를 개혁하는 자기혁신형 중소기업’, ‘세계시장을 누비는 글로벌형 중소기업’으로 유형별로 소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독창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로 유일무이한 온리 원 기업으로 불릴 자격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를 통해 빅 컴퍼니보다는 굿 컴퍼니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계에 도전하는 기술지향형 중소기업

01

신코전자 新光電子

숨겨진 기술의 진가를 인정받다

❖ 기업개요

회사명 | 新光電子株式會社

소재지 | 東京都文京區

URL | <http://www.vibra.co.jp/>

설립연도 | 1943년(1938년 창업)

자본금 | 1963년

분 야 | 전자저울 제조판매

❖ 생산 제품

2002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27회 발명대상(일본발명진흥협회·일간공업신문 공동주최)에 ‘음차진동식 하중변환장치’(音叉振動式 荷重變換裝置)가 선발되었다. 전자저울을 만드는 신코전자가 1983년에 개발하여

상품화에 성공했던 기술이다. 20년의 세월이 지나 ‘재평가’를 받은 것은 거울의 유효구경(有效口径)이 8.2미터로 세계최대의 광학식 적외선 망원경 ‘스바루’의 핵심기술의 하나로 이 회사의 음차식(音叉式) 센서기술이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케이’라는 산 정상에 설치된 ‘스바루’는 2003년에 지구에서 128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가장 먼 은하를 발견하는 등 원거리 은하의 순위를 연이어 갈아 치우는 경이로운 성과를 올렸다. 100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진행되는 테니스시합의 공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정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울의 일그러짐을 나노 단위에서 교정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울의 안쪽에는 261개의 구동장치를 설치하여 0.1초 마다 일그러짐을 관찰하여 조종할 수 있는 센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1개 당 최대 150킬로그램의 하중을 견디며 1그램 간격으로 무게의 변화를 감지하는 과혹한 조건을 유일하게 통과한 것이 신코전자가 개발한 음차

식(音叉式) 센서였다.

Only-One 기술

음차(音叉)는 발음체의 진동수를 재는 기구로 음향 측정이나 악기의 조율 등에 쓰인다. U자형으로 된 금속부위를 두드리면 일정한 주파수로 정확하고 안정적인 진동이 계속된다. 이러한 음차 두 개의 머리 부분을 서로 접합시킨 것이 음차진동자(音叉振動子)이다. 이 진동자의 밑 부분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위에서 잡아당기면 주파수가 변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하여 지지기구를 조합시킨 것이 음차식 센서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정밀도가 매우 뛰어나고 소비전력이 적은 장점이 있으며 전파 등의 외부충격에도 강하다.

이러한 음차식 센서의 특성이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국가검정을 받은 특정 계량기만 사용할 수 있는 약국의 조제용 저울이다. 마츠모토공업은 이 분야에서 60% 이상의 일본 국내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 분야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스위스 등에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음차식 센서는 마츠모토공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다. 다른 센서와 같이 기존의 설계도와 회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거듭되는 시행착오를 통해 사내에 축적된 노하우와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무장한 기술자가 이 회사에 없었다면 이러한 기술개발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음차진동자, 지지기구가 조합된 음차식 센서는 한 장의 금속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부품을 구분하여 조립하면 접합부위에 틈이 생겨 높은 정밀도를 구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음차식 센서의 가장 얇은 틈새는 0.1밀리밖에 되지 않는다.

개발된 기술의 장치 자체는 결코 특수하지 않다. 어떤 순서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장치의 사용방법에 그 열쇠가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부품도 사내에서 절삭 가공하여 만들고 있다. 절삭기의 선택과 가공 순서 등의 노하우를 꾸준히 축적해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는 수준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츠모토공업의 직원은 국가가 인정하는 소수의 기능공이 대부분이며, 1급기계기능사 등 가공기술에 대한 각종 국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능공의 기술이 사내에서 후배들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성장과정 및 향후전망

신코전자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차동(差動) 트랜스식 측정기의 상품화에 성공하여 1963년에 창업하였다. 1972년에는 세계 최초의 전자개수(電子個數)저울을 개발하는 등 계속해서 특색 있는 제품을 만들어왔다.

음차식 센서의 정밀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그 용도가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초경량에 쓰이는 ‘캐럿저울’은 다이아몬드 등의 고가의 보석을 0.001캐럿(0.2밀리그램)단위

로 계량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계량법에 따라 2년마다 받아야하는 검사가 의무화되어있는 계량기 업계에서 마츠모토공업이 처음으로 5년 보증을 확보하는 패거리를 올려 타사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마츠모토공업은 현재 음차식 센서에 필적할만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류분야에 쓰이는 계측기기 개발이 바로 그것이다. 1991년에 하물의 길이 · 폭 · 높이 · 무게를 컨베이어 위를 통과시키는 것만으로 순식간에 측정할 수 있는 질량측정장치를 개발하여 신제품은 북미의 대형 물류기업에 300대 이상 판매했다.

또한 분속(分速) 174미터의 속도로 흘러가고 반송(搬送)간격이 35센티미터밖에 안될 정도로 접근해 있는 하물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초고속 반송계측기도 시장에 선보였다. 사방의 길이가 평균 45센티미터의 하물이라면 1시간에 12,000개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가졌다. 이들 계측기는 모두 컴퓨터에 접속해서 간단하게 데이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짜여있다.

창업 이래 줄곧 특수제품의 주문생산에 의존해왔던 기존의 생산체제를 최근 10년 동안 정리 통합하여 음차식 센서 분야에 집중시켰다. 2001년에는 모든 제품을 ‘비브라(VIBRA)’라는 상표로 통합하고 브랜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2013년 창업 30주년을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도 물류사업에 두고 있다. 국제물류는 세계적으로 자동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일본이 결코 앞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츠모토공업이 이 분야에서도 독특한 기술로 특색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전승가도를 질주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참고자료〉

마츠모토공업 홈페이지

(<http://www.matsumoto-kk.co.jp>)

木村元紀(2005), 『中小企業ですがものづくりでは世界でトップです』, 洋泉社. 

성장이 기대되는 신시장개척형 중소기업

02

국제계측기 國際計測器

기술혁신으로 시장 판도를 바꾼다.

❖ 기업개요

회사명 | 國際計測器(株)

소재지 | 東京都多摩市永山6-21-1

URL | <http://www.kokusaikk.co.jp/>

설립연도 | 1969년(창업)

자본금 | 10억 2천만 엔

분 야 | 계측장치 제조 판매

❖ 생산 제품

지난 2001년 5월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가 자사의 소형트럭 등에 장착된 타이어 약1,300만개의 리콜을 발표하여, 타이어의 안정성과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리콜사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의 승차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차륜에 타이어를 장착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타이어가 손상되어 직접 교체를 해본 경험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타이어와 차륜 사이에 작은 추가 달려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타이어의 균형을 바로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품이다. 타이어를 차륜에 장착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차륜

균형’이 적정하지 않으면 불과 얼마 안 되는 무게의 불균형이 원심력이 되어 차체소음과 핸들(Steering)진동을 발생시켜 승차감이 나빠질 뿐 아니라 자동차의 기본성능에 직결되어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러한 자동차의 핵심 부품의 하나인 타이어 균형 기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 국제계측기이다.

❖ Only-One 기술

일본의 유력 일간지중 하나인 일간공업신문사(日刊工業新聞社)의 ‘2003년(제46회) 10대 신제품상’의 중견 · 중소기업상에 국제계측기의 ‘전자동 타이어 종합평가 장치’가 선정되었다. 이 장치는 타이어와 차륜을 조립한 상태에서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시속 120킬로 정도의 실제 주행 속도로 타이어의 균형과 균등을 동시에 순간적으로 측정 · 수정할 수 있다. 검사 뿐 아니라 생산라인을 멈추지 않고 불량적소의 수정까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획기적인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이어의 균등이란 타이어의 중량분석과 내부강성 등이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타이어는 고무와 와이어 등의 여러 가지 소재가 섞인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이 구성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균일하지 않으면 주행 중에 흔들림이나 상하진동이 일어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타이어에 500~700그램(차체중량의 1/4 상당)의 하중을 주어 회전시킴으로

써 실제 주행상태와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타이어의 각 부분에 걸리는 압력을 감지한다. 한편 타이어 균형의 경우에는 타이어를 공중에서 회전시켜 원심력을 이용하여 무게의 차이를 측정한다.

원래는 타이어의 균형과 균등 상태를 별도로 측정했었다. 또한 균등상태의 측정조건으로 1초에 1회전, 시속 7킬로미터 정도로밖에 설정할 수 없었다. 이에 반해 국제계측기는 고속으로 균등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균형상태 측정기와 결합시킨 복합기(고속UB머신)를 탄생시켰다. 이 복합기의 등장으로 관련시장의 판도가 새롭게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업체가 타이어업체에게 타이어의 동적균형 검사를 요청해도 타이어업체는 허용하지 않았다. 타이어업체의 전체 생산량 중에 불과 20%정도가 자동차업체로 납품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동차업체는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부품 중에 가장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 타이어였다.

그러나 국제계측기가 고속UB머신을 개발함으로써 상황이 변했다. 종래의 저속머신으로는 알 수 없었던 고속주행시의 진동 문제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종래의 품질 검사로는 문제없이 통과했던 타이어도 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장 먼저 도요타자동차가 도입을 결정하여 신차 타이어는 고속UB머신으로 모든 제품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닛산, 혼다도 바로 이어서 도입할 움직임을 보였고 미국의 자동차업체와도 협상에 큰 진전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자동차업체의 독자적

인 검사로 불량품이 늘어나게 되면 타이어 업체에게도 고속UB머신을 이용한 검사를 요구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

❏ 성장 과정

국제계측기는 1969년에 창업하였으나 당시에는 냉동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의 균형을 수작업으로 측정하는 기계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설비의 자동화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저비용으로 간단하게 자동화가 가능한 기술을 1981년에 개발하여, 당시 수입제품의 1/5의 비용으로 자동균형기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개발에 성공한 전자동장치는 일본 가전업체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겹쳐 공급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잘 팔렸다.

그러나 얼마 후 일본의 가전업체들이 연이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일본 국내 가전산업의 공동화현상이 초래되었다. 반면 자동차산업이 급성장하였다. 실제 자동차에도 적지 않은 전장용(電裝用)모터가 이용된다. 와이퍼, 파워윈도우, 에어컨 등 고급차인 경우에는 80~90개가 넘는데, 이들 전장용(電裝用)모터에 필요한 균형기계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업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국제계측기가 본격적으로 자동차부품업체에 진출하게 된 것은 크랭크축 등의 비틀어짐을 자동으로 교정하는 장치를 개발하면서부터이다.

한편 국제계측기의 현재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90년대 초에 있었

다. 타이어업체로부터 차륜도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이어의 동적(動的)균형을 측정하는 장치를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때까지 업계에서는 정적(靜的)균형 방식으로 불리는, 타이어를 저울에 올려 무거운 쪽이 기울어지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검사를 했었다. 현재도 세계적으로 약 70%가량이 이 방법을 이용하여 타이어를 검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일본국내의 타이어업체가 균형측정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전체 생산량의 20%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업체 납품용이다. 나머지 80%는 타이어를 교체하는 서비스시장용 제품으로 이들은 동적(動的)균형을 이용한 검사를 하지 않는다. 제조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중국, 대만 등의 업체는 제조기술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업체용은 물론 서비스시장에서도 동적(動的)균형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계측기의 장치는 아시아에서 급속하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거의 100%에 가까운 시장장악력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국제계측기 홈페이지

(<http://www.kokusaikk.co.jp/>)

日刊工業新聞特別取材班編(2003), 『この分野一番企業』, 日刊工業新聞社.

木村元紀(2005), 『中小企業ですがものづくりでは世界でトップです』, 洋泉社.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홈페이지

(<http://j-net21.smrj.go.jp/>) 

생산체제를 개혁하는 자기혁신형 중소기업

03

마루토 하세가와 공작소

マルト長谷川工作所

초 단위로 작업공정을 관리한다.

❖ 기업개요

회사명 | マルト長谷川工作所

소재지 | 新潟縣三條市

URL | <http://www.keiba-tool.com/>

설립연도 | 1943년

자본금 | 천만 엔

분 야 | 커팅공구

❖ 생산 제품

마루토하세가와공작소(이하 마루토)는 철사 따위를 끊거나 잡아 비틀거나 구부리는데 쓰는 펜치(pincers)와 집게 또는 못 등을 뽑는 데 사용하는 니퍼(nipper)와 같은, 손의 연장으로 사용되는 작업용 공구 분야에서 확고한 브랜드인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이 회사 제품에 붙어있는 ‘케이바’(KEIBA)라는 브랜드는 한국에서도 명품 작업공구로 취급받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사용하기 편리하면서 쉽게 싫증나지 않는 디자인까지 갖추고 있어 세계 곳곳에 특정 마니아가 적지 않다. 일본에서 그간 각종 제품 디자인과 관련한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도 이 회사의 자랑거리 중 하나이다.

날이 서있는 연장을 우리는 보통 날붙이라고 하는데, 일본어로 옮기면 하모노(刃物)

가 된다. 일본에서 이러한 ‘하모노’의 산지로 가장 유명한 곳이 니이가타(新潟)현의 산조(三條)시인데 ‘케이바’ 역시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2004년에 창립 80주년을 맞은 회사 본사 역시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 Only-One 기술

요즘 펜치나 니퍼는 가까운 슈퍼에 가도 살 수 있고, 여러 공구가 들어있는 공구세트도 몇 천 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마루토가 만드는 작업공구는 수십만 원을 호가한다. 이 회사 제품이 저렴한 공구와 다른 점은 ‘키레아지’(切れ味)가 다르기 때문이고 그것을 소비자가 인정하고 있다.

‘키레아지’라는 말은 독특한 일본적인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잘리고 안 잘리는 것으로 날붙이 공구의 품질을 가늠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 맛(味)을 추가한다. 즉 칼드는 맛(정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속을 고도로 가열한 후, 급랭하여 경도(硬度)를 높이는 작업 하나에도 이와 같은 ‘키레아지’가 유지되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관리한다.

실제 이 회사의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플라스틱용 니퍼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다. 중국인이 저렴한 자국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공장의 작업자가 손을 다치는 일이 없고, 장시간 계속해서 사용해도 물집이 잡히는 경우가 없으며 제품 수명이 길다는 여러 장점을 감안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지는 저가 제품의 공세는 물론이고 대량생산에서 다품종소량생산으로의 전환

되어가는 추세는 작업공구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마루토의 연간 생산량은 가장 많았던 때의 450만개에서 240만개로 절반가량이나 줄었다. 반대로 제품 종류는 주요한 12품목에서 1200개의 사양으로 100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6년부터 시작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 도요타자동차의 생산방식인 ‘저스트인타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MPS(Maruto production System) 생산방식이다.

❖ 독특한 생산방식

MPS생산방식은 2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필요한 때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만큼 만드는 것이며, 둘째는 생산량, 종류, 시간 등 생산요소 모두를 평균화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MPS의 효과는 재고감소와 공정과정 단축 등 명확한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MPS 도입 이전의 1995년에는 재고(중간단계재고+완성품재고)가 약97만개였으나, 현재는 20만개까지 축소되었다. 80%감소라는 경이로운 삭감율을 달성한 것이다. 금액으로는 1997년에 1억8천만 엔이었던 재고가 2002년에 6천 4백만 엔으로 3분의 1로 감소했다. 공정과정 단축으로 총2만8천 시간, 약 1억 초에 해당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모든 사원이 생산라인 단위로 팀을 만들고 6개월 간격으로 철저하게 개선작업을 실행에 옮긴다. 작업자의 체형과 보폭에 맞추어 생산대열 간격을 조정하고 초 단위로 생산효율을 확인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절약

되는 몇 초 몇 초가 쌓이고 쌓여, 수 만 시간의 작업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웬만한 생산현장에서 개선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루토가 그간 쌓아 올린 개선실적은 타사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 신성장 전략

마루토는 작업공구 특히 날붙이공구 분야의 뛰어난 제품개발로 안정적인 수익을 그 동안 창출해 왔으나, 공구시장이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더 이상의 시장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저가제품으로 꾸준히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가고 있는 중국과 아시아의 공세에 대응하여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품으로 승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에는 작업공구 분야에서 완전히 철퇴하더라도 괜찮을 정도의 기업체제 구축을 위해 이미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마루토가 신성장 분야로 주목한 것은 이발과 미용에 쓰이는 가위 등의 공구시장이다. 가령 유명 헤어디자이너가 사용하는 가위는 하나에 수 십 만 엔을 호가하는 것이 수두룩하다. 일본의 이런 가위 제조업은 전통적인 기능공들이 만드는 것으로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다. 또한 그간 사내에 축적된 펜치를 만드는 기술과 MPS에 의한 효율적인 생산체제가 100% 가동하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니퍼와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손톱

깍이 시장도 유망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네일아트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공구도 급속하게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애완용 동물의 손톱깍이 등 점차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네일 아티스트의 주문을 받아 특수 제작하는 상품이 개발되어 범용성 검토에 착수했고, 이 발과 미용에 쓰이는 고성능 가위도 시장에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아직 작업공구 이외의 매출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이 회사만이 가능한 ‘키레아지’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아직 무궁무진해 보인다.

〈참고자료〉

마루토하세가와공작소 홈페이지

(<http://www.keiba-tool.com>)

木村元紀(2005), 『中小企業ですがものづくりでは世界でトップです』, 洋泉社.

經濟産業省 中小企業廳編(2006), 『元気なモノ作り中小企業300社』.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홈페이지

(<http://j-net21.smrj.go.jp/>) 

세계시장을 누비는 글로벌형 중소기업

04 닛신공구 日進工具

틈새시장의 틈새시장을 개척한다!

❖ 기업개요

회사명 | 日進工具(株)
소재지 | 東京都品川區
URL | <http://www.ns-tool.com/>
설립연도 | 1954년
자본금 | 1억 엔
분 야 | 절삭공구 제조 판매

❖ 생산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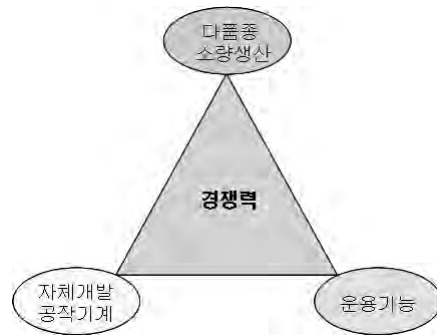
일본의 제조업이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국내의 금형산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금형분야는 신속하게 붕어빵 찍어내듯 똑 같은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고도의 정밀도를 구현해 내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점차 금형 자체가 소형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일본은 전 세계 금형의 약50%를 생산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금형과 관련된 기업이 무수히 많고 금형의 절삭공구를 만드는 기업 역시 수없이 많다. 금형에는 자동차의 차체와 같은 대형금형이 있는가하면, 휴대

전화의 부품과 디지털카메라에 내장되는 초소형금형도 있다. 그래서 사용되는 절삭공구도 수 십 센티미터의 큰 것에서부터 밀리미터 단위의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닛신공구는 창업 이래 줄곧 금형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절삭공구 중에 하나인 엔드 밀(end mill, 금형의 표면이나 측면 가공에 쓰이는, 원통면과 끝에 날이 있는 절삭부)만을 만들어온 전문업체이다. 이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기업은 대기업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초소형 엔드 밀을 주력 분야로 하고 있으며 그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다.

닛신공구의 이와 같은 높은 경쟁력은 철저한 다품종소량생산, 오랜 기간 쌓아온 생산기술로 만들어낸 자사개발의 공작기계, 그리고 이것을 운용하는 직원의 탁월한 기술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닛신공구의 경쟁력〉

❖ Only-One 기술

닛신공구의 초소형 엔드 밀은 끝 날의 직

경이 1밀리미터에 불과하다. 가장 끝부분의 날은 밀리미터 단위를 벗어난 1/100밀리미터 또는 1/1,0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도 수두룩하다. 뾰족한 날의 완성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육안으로는 어림도 없고 반드시 현미경이 필요하다. 직경이 1/10밀리미터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금형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면서 깎을 수 있는 경도(硬度)와 예리함을 갖춘 칼날이어야 한다. 이러한 칼날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데 원통면에는 절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위한 홈도 파야 한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홈 역시 밀리미터 이하 단위의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초소형 엔드 밀이 필요하게 된 것은 최근 금형이 급속도로 소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트북에는 밀리미터 단위의 톱니바퀴가 이용되고 있으나 이 톱니바퀴의 대부분은 금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휴대전화에 내장된 부품도 밀리미터 단위의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부품의 상당부분도 금형이 없으면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다. IT기술의 발전으로 전자부품의 소형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밀리미터 단위의 부품생산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여기까지 소형화된 부품을 대량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없었던 미세한 금형을 만들어야했고, 이에 필요한 절삭공구도 1/10밀리미터 단위의 제품이 필요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닛신공구는 밀리미터 단위의 초소형 엔드 밀에 생산을 특화하여 성공을 이루었다. 물론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게 되기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 성장 과정

닛신공구는 1954년에 설립되었다. 그 이후 줄곧 엔드 밀의 전문업체로 성장해왔으나, 이 분야에 대기업은 물론 경쟁사가 전혀 없었던 것을 아니다. 이러한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했고, 쉽게 흉내 내기 어려운 영역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같은 엔드 밀이라 하더라도 초소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닛신공구는 이 분야라면 진출하는 기업도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소형분야에 특화하여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다. 머지않아 1/10밀리미터 단위의 제품을 만드는데 성공하였으나 다른 회사도 곧이어 제품개발에 성공했다. 그래서 간단히 모방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확립한 것이 생산기술 그 자체의 독자 개발이었다.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차별화된 생산라인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면 경쟁사가 흉내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닛신공구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기계를 사실상 자체적으로 제조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기술적 노하우를 생산기술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상이라고 판단했다. 그 만큼 비용이 상승하지만 생존하기 위한 필요경비라고 생각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닛신공구의 또 다른 강점은 취급하고 있는 엔드 밀의 종류가 6,400여개에 이른다는 점이다. 철저한 다품종소량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닛신공구의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인 초소형 전자부품용 엔드 밀 분야는 금형업체가 각각 다양한 조건의 제품

을 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끝부분 날의 크기는 물론 경도(硬度)도 각기 다를 뿐 아니라 원통면의 크기와 홈의 깊이까지 모든 제품이 제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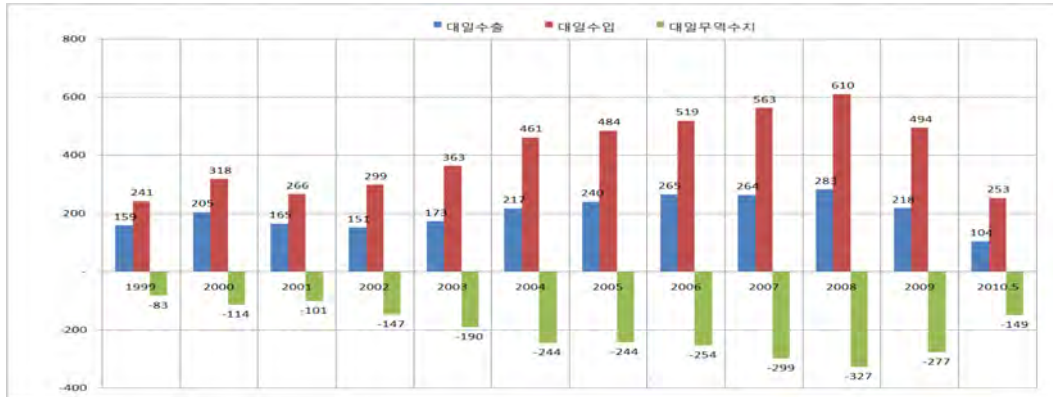
지난 1980년대 버블경제 속에 고속성장을 한 일본의 금형업체가 버블붕괴 이후 혹독한 경영난을 경험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은 차별화전략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닛신공구 역시 유사한 경험을 통해 공

격적인 경영만이 살아남기 위한 방책이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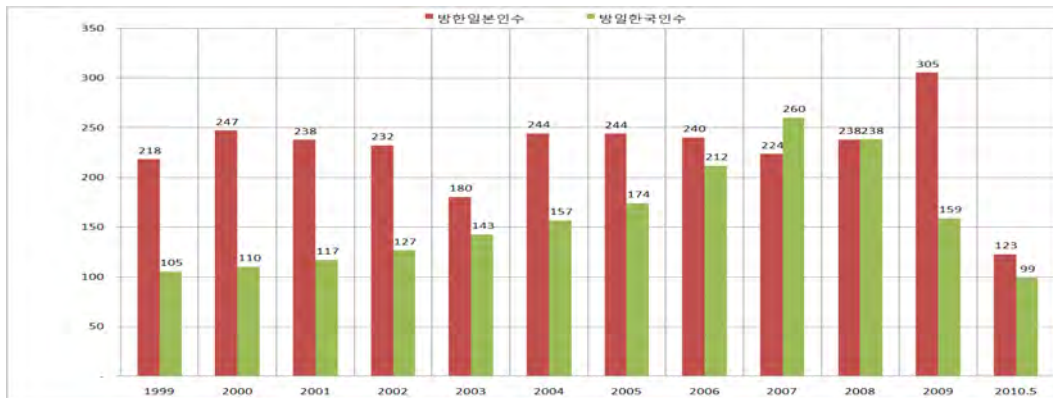
닛신공구 홈페이지(<http://www.ns-tool.com>)
日刊工業新聞特別取材班編(2003), 『この分野一番企業』, 日刊工業新聞社.
黒崎誠(2003), 『世界を制した中小企業』, 講談社 現代親書. 

한일 교역 현황 (단위 : 억불)



구 분	총수출 (A)	총수입 (B)	총교역액 (C=A+B)	대일수출 (D)	대일수입 (E)	총대일교역 (F=D+E)	대일수출비중 (G=D/A)	대일수입비중 (H=E/B)	대일무역수지 (I=D-E)
1999	1,437	1,198	2,637	159	241	400	11.0%	20.2%	-83
2000	1,723	1,605	3,327	205	318	523	11.9%	19.8%	-114
2001	1,504	1,411	2,915	165	266	431	11.0%	18.9%	-101
2002	1,625	1,521	3,146	151	299	450	9.3%	19.6%	-147
2003	1,938	1,788	3,726	173	363	536	8.9%	20.3%	-190
2004	2,538	2,245	4,783	217	461	678	8.5%	20.6%	-244
2005	2,844	2,612	5,456	240	484	724	8.4%	18.5%	-244
2006	3,255	3,094	6,348	265	519	785	8.2%	16.8%	-254
2007	3,715	3,568	7,283	264	563	826	7.1%	15.8%	-299
2008	4,220	4,353	8,573	283	610	891	6.7%	14.0%	-327
2009	3,635	3,231	6,866	218	494	712	6.0%	15.3%	-277
2010. 5월	1,798	1,683	3,481	104	253	357	5.8%	15.0%	-149

한일 인적교류 현황 (단위 : 만명)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5월
방한 일본인수	218.4	247.2	237.7	232.1	180.3	244.3	244.0	233.9	223.6	237.8	305.3	122.6
방일 한국인수	105.4	110.1	117.0	126.6	142.7	156.9	173.9	211.7	260.1	238.3	158.7	99.0
계	323.8	357.3	354.7	358.7	323.0	401.2	417.9	445.6	483.7	476.1	464.0	221.6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진흥기구

